

쌀 본격 출하... 천정부지 쌀값 떨어지나

쌀 생산량 전년보다 2.4% 감소 387만5000t 예상 초과공급에 유통업체 매입 줄어들면 약세 보일 듯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확기 쌀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예상치보다 높게 형성된 쌀값은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고 유통업체의 매입이 줄어들면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도 예측된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11월 쌀 관측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4%(9만7000t) 감소한 387만5000t으로 예상된다.

특히, 벼에 이삭이 패이는 출수기 기상여건이 좋지 못했던 호남을 비롯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쌀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남지역은 출수이후 두 차례 태풍과 폭우 등 피해를 입으며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만4000t 줄며 6.5% 감소, 전국 평균과 타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처럼 올해 쌀 생산이 감소한 데다, 지난해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재배농가들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이어지면서 쌀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7.8% 높은 80kg당 19만3008원이다. 여기에 농업관측본부 산지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수확기 전국 평균 벼 매입 예상가격도 40kg당 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의 벼 매입 예상가격 역시 같은 기간 24% 상승한 6만2000원, 민간RPC는 26% 오른 6만1000원이다. 하지만, 이런 쌀값 상승세에도 본격적인 수확이 들어가면 약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시장의 기대심리 등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쌀

값이 높게 형성됐지만, 중간생음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규모도 축소되면 주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부가 올해 쌀 초과공급 물량이 9만t 내외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쌀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매입규모가 농가의 출하기피와 생산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축소될 것이라 예상한다. 벼 출하 경향, 산지 쌀 가격 추이 등에 따라 벼 매입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국 증시 폭락으로 코스피도 급락세 현 지수대 기술적 반등 언제든 가능 미·중 무역전쟁 무관한 성장주 관심

글로벌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홀로 상승흐름을 이어가던 미국 뉴욕증시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기술주 실적 약화 전망으로 폭락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증시가 연쇄적인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이탈리아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증시는 우리나라 성장률과 기업실적 약화 우려, 한미금리 격차 추가확대 가능성 등 그동안 반복된 약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공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증시 보다 유독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증시가 글로벌증시 변동성에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비중조절이 용이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이 국내증시 투자 비중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데, 새로 임명된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외투자에 능통한 인물로 최근 신흥국을 포함한 해외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국내투자 비중축소 가능성도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5.99% 하락하며 2027.1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10.45% 하락해 663.07를 기록하며 폭락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미국증시 다우지수(-2.97%)와 나스닥지수(3.78%)가 하락한 것을 생각하면 국내증시의 외부변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이후 코스피지수는 2343포인트에서 2027포인트로 13.4%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도 663으로 밀리며 19% 폭락했다.

증권시장에서는 97년 IMF와 2007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10년 위기설'이 다시 거론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금융전문가들도 현 상황의 하락은 이해하기 힘든 상태로 과도한 부분이 있다. 다만, 2007년 미국 금융위기도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지수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리먼사태'가 발생하면서 모기지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최근 하락장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지수대에서는 언제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다만, 미국증시의 하락여파가 지속될 수 있고 당분간 시장의 흐름을 바꿀만한 상승동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도 극도로 냉각되어 있어 지수 저점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총액 상위 주종 가치주 영역에 속하고 경기흐름에 민감하지 않으며 미·중 무역전쟁 이슈와 무관한 성장주에 관심이 갖는 것이 좋을 보인다. 시장 급락에 따라 대응한다면 필자가 몇차례 언급하였듯이 개별기업에 대응하는 것보다 지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ETF 매매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임광희(왼쪽)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과 김삼식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26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도시민 귀어·귀촌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수협전남본부 대도시 귀어·귀촌 희망자 지원 나선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전남 어촌으로의 도시민 귀어·귀촌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남도의 도시민귀어귀촌사업에 공동추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도시의 귀어·귀촌 희망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28일 "지난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도시민들이 전남 어촌으로 귀어·귀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전남 어촌계의 '문턱 낮추기', '도시민 어촌 유지지원사업 사전 검토 및 공동 추진', '다양한 사업의 기획 및 협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도 향후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도시민 어촌 유지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협 전남본부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

진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우선 오는 11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내 어촌계와 도시민이 직접 만나 상담하는 '전남 귀어·귀촌'을 첫 사업으로 공동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엑스포는 전남도내 우수 어촌계 20여곳이 직접 부스를 설치해 귀어·귀촌 희망자와 상담하고 어촌계를 홍보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또 엑스포에서 12월 초순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귀어·귀촌을 결정한 도시민들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어촌계에서 1박2일 휴스테이를 하는 '전남 귀어의 날' 행사도 갖기로 했다.

김삼식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 어촌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도시민들이 귀어·귀촌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전남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치와 함께 먹는 '한돈'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26일 광주시 남구 김치타운에서 열린 광주세계김치축제장에서 우리돼지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를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트랙터에 부착 '무 복합 파종기' 나왔다

한번에 4줄 파종 가능 농촌 노동력 대폭 절감 기대

농촌진흥청은 28일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무 복합 파종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무 복합 파종기 개발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진흥청 측의 설명이다.

무 재배 과정에서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은 2016년 기준 60.2%를 기록했지만, 파종 작업은 뜯긴 비닐이 닿아 작물이 죽는 문제로 기계화가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한 파종기는 두둑 성형, 비닐 피복, 비닐 절개, 파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장치다. 이 장치는 평토두둑 2줄 재배용으로 한번에 4줄을 파종할 수 있다.

특히, 작업 성능을 분석한 결과 10a에 불과 0.7시간이 걸려 손으로 파종할 때 12.3시간이 걸리던 것과 비교해 노동력을 94%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비용 역시 64% 절감됐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무 복합 파종기를 대상으로 현장 적응성 시험을 거친 뒤 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태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루팡 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플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근공관원 옆) 사주(운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현,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